

함경북도의 재가승에 관한 연구

이수창(마성)*

• 목 차 •

- I. 머리말
- II. 고려·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재가승
- III. 일제강점기 재가승에 관한 조사
- IV. 재가승 출현의 사상적 배경
- V. 맺음말

* 팔리문헌연구소 소장.

© 『大覺思想』 제38집 (2022년 12월), pp.47-77.

한글요약

본고는 한반도에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였던 재가승(在家僧)들이 어떤 역사적·사상적 배경에서 출현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불교교단사(佛敎敎團史)의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문헌상에 나타나는 한국불교의 재가승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일연(一然)이 지은 『삼국유사(三國遺事)』이다. 그 밖에 『고려사(高麗史)』와 송(宋)의 사신 서공(徐兢, 1091~1153)이 지은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과 조선 후기 조정의 관리나 유자(儒者)들의 저술에 단편적으로나마 북방 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던 재가승에 관해 언급한 부분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기록들은 대부분 흥미 위주로 여진유민(女眞遺民)으로 추정되는 재가승들이 북방 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취처육식(娶妻肉食)’을 한다는 사실을 크게 부각(浮刻)시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할 뿐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이마니시 류(今西龍)를 비롯하여 함경북도 사회과에서 관내에 거주하고 있던 재가승의 현황과 실태에 관해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조사 보고서도 조선 후기 조정의 관리나 유생들의 기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재가승의 유래’에 관한 것이고, ‘재가승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재가승들이 온갖 사회적 멸시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불교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혈육을 통해 대대로 법맥(法脈)을 계승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국내 불교학계에서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한국불교의 재가승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는 북방 변경 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던 재가승에 관한 최초의 학문적 시론에 불과하다. 본고를 계기로 한국불교의 재가승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고려도경(高麗圖經), 재가승(在家僧), 우바새승(優婆塞僧), 취처육식(娶妻肉食), 밀교(密敎), 다라니(陀羅尼), 여진족(女眞族)

I. 머리말

재가승(在家僧)이란 ‘가정을 가진 승려’라는 뜻이다. 재가승을 지칭할 때, 서궁의 『고려도경』에서는 ‘취부(娶婦)’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¹⁾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보고서에서는 ‘취처(娶妻)’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²⁾ 일제강점기에는 재가승과 같은 의미로 ‘우바색가승(優婆索迦僧)’³⁾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른바 ‘우바새승(優婆塞僧)’이라는 뜻이다.⁴⁾ ‘대처승(帶妻僧)’이라는 용어는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236권, 성종 21년 1월 27일 기사에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1954년부터 시작된 승단 분류 당시 비구 측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⁵⁾ 그러나 불교교단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을 지칭할 때 ‘재가승’ 또는 ‘우바새승’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가승은 한반도에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이미 신라시대 때부터 재가승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⁶⁾ 실제로 일연(一然,

-
- 1)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제18권,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GO#/dir/node?dataId=ITKC_GO_1369A_0190_020_0060 (검색: 2022. 9. 15).
 - 2) 今西龍, 「在家僧に關する調査一斑」, 『朝鮮彙報』, 1915년 3월호, p.51.
 - 3) 「河口師의 更生宣誓」, 『佛教』 제20호, 1926년 2월호, p.43
 『佛教』 제731호(2022년 10월호), p.63.
 - 4) 우바색가승(優婆索迦僧)을 우바새승(優婆塞僧)이라고도 하는데, 재가승이라는 뜻이다. 빨리어 우빠사까(upasaka)의 음역은 우바새(優婆塞)이고, 신남(信男), 청신사(淸信士) 등은 의역이다.
 - 5) 『조선왕조실록』 36책 236권, 26장 A면, “이수공(李守恭, 1464~1504)이 [왕에게] 아뢰기를, “도첩(度牒)이 없는 승인(僧人)과 대처승(帶妻僧)은 모두 찾아내어 죄를 다스리는 일을 제도(諸道)에 거듭 유시(諭示)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守恭啓曰: ‘無度牒僧人及帶妻僧人, 搜括治罪事, 請申諭諸道.’ 上曰: ‘可.’)”
 - 6) 「威北の在家僧(1)」, 『朝鮮佛教』 제11호, 1925.3.11, p.11에 “조선에 불교가 전래한 이후, 순수한 승려가 아닌 승려를 직업으로 집을 짓고 아내를 거느리고 자녀를 기르며 속인과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던 것은, 굉장히 오

1206~1289)이 지은 『삼국유사(三國遺事)』 권5 「광덕 엄장(廣德嚴莊)」에 “광덕은 분황사 서리에 은거하여 신을 삼는 것을 생업으로 하면서 처자를 데리고 살았다(德隱居芬皇[寺]西里, 蒲鞋爲業, 挾妻子而居).”⁷⁾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것이 문헌상에 나타나는 한국불교의 재가승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 또 정인지(鄭麟趾, 1396~1478) 등이 1451년(조선 문종 원년)에 편찬한 『고려사(高麗史)』 권5 세가(世家) 현종(顯宗, 991~1031) 20년(1029) 6월 29일 기사에 “아내가 있는 승려[有妻僧]를 징발하여 중광사(重光寺) 노역에 동원하다(丙辰, 徵有妻僧, 充重光寺徒役).”⁸⁾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송나라 사신 서궁(徐兢, 1091~1153)이 지은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이하 『고려도경』이라 약칭)에 고려시대 북방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재가승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고려도경』 이후, 조선후기 홍양호(洪良浩, 1724~1802)가 지은 『북새기략(北塞記略)』, 우하영(禹夏永, 1741~1812)이 지은 『시무책(時務策)』의 「육진승도의(六鎭僧徒議)», 정운용(鄭允容, 1792~1865)이 지은 『북로기략(北路紀略)』 등에 재가승이 함경북도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이마니시 류(今西龍, 1875~1932)가 함경북도 지방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던 재가승에 관해 조사하였다. 그는 「在家僧に關する調査一斑」이라는 보고서를 『朝鮮彙報』(조선총독부, 1915년 3월호)에 게재하였다.⁹⁾ 그 후 함경북도 사회과에서 도내에 거주하고 있던 재가승

래된 일로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생각되지만”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7) 一然 著, 『三國遺事』 卷5, 「廣德嚴莊」(韓佛全6, 358b).

8) 鄭麟趾 等編, 『高麗史』 卷5, 世家 顯宗 20년(1029) 6월 29일자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kr#detail-kingYear/kr_005_0070_0070_0040/8/ 1029/06 (검색: 2022. 11. 29)

9) 今西龍, 「在家僧に關する調査一斑」, 『朝鮮彙報』 「朝鮮總督府」, 1915년 3월호. 이 자료는 고려대학교 일본 연구 아카이브, 韓半島刊行日本語文獻(No. 999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집단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조사 보고서가 「咸北の在家僧」이라는 제목으로 『朝鮮佛教』 제11호(1925. 3. 11)와 제12호(1925. 4. 11)에 게재되었다.¹⁰⁾

한편 이능화(李能和, 1869~1943)는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에서 재가승에 대해 몇 차례 언급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이재욱(李在郁, 1905~1950)¹¹⁾이 『재가승만고(在家僧漫考)』라는 제목으로 1935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4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연재하였다. 현재 이 책은 단행본(e-book)으로 유통되고 있으며,¹²⁾ 여러 웹사이트에서도 소개되고 있다.¹³⁾

이처럼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재가승에 관해 몇몇 사람이 언급했지만, 대부분 흥미 위주의 단편적인 기술에 불과하다. 이들은 북방 지역에 재가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나, 재가승의 정체성이나 재가승 출현의 원인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였다. 이를테면 여진족(女眞族)의 후예(後裔)로 추정되는 재가승들이 지금의 함경북도 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취처육식(娶妻肉食)’을 한다는 사실만 드러내 관심을 유도할 뿐이다. 더욱이 국내 불교학계에서는 해방 이후 재가승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고에서는 함경북도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던 재가승이 어떤 역사적·사상적 배경에서 출현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불교교단사(佛敎敎團史)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0) 「咸北の在家僧(1)」, 『朝鮮佛教』 제11호(1925. 3. 11.), p.11
 「咸北の在家僧(2)」, 『朝鮮佛教』 제12호(1925. 4. 11), p.10.

11) 이재욱(李在郁, 1905~1950)은 대구 출신의 민속학자로 민속자료 연구에 헌신했다. 한국 전쟁 당시 행방불명되었다. 대표 저서로는 『조선민요선』(공저), 『독서와 문화』 등이 있다.

12) 이재욱, 편집부 옮김, 『재가승만고(在家僧漫考)』, 온이퍼브, 2019.

13) <https://ko.wikisource.org/wiki/재가승만고/> (검색: 2022.9.30)

II. 고려 ·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재가승

1. 『고려도경』에 나타난 재가화상

『고려도경』은 고려 인종(仁宗) 1년(1123)에 송(宋)의 사신으로 고려를 방문하여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서적이다. ‘선화(宣和)’는 송나라 휘종(徽宗)의 연호이다. 『고려도경』은 송나라 휘종의 명에 따라 사신으로 파견된 서궁이 한 달 남짓 개경(開京, 지금의 開城)에 머물면서 보고 들은 내용을 송나라에 돌아가 편찬한 것이다. 이 책은 원래 먼저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보충하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는 그림은 없어지고 글만 남아 있다. 『고려도경』 제18권 ‘재가화상(在家和尚)’이라는 제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재가화상은 가사를 입지 않고 계율을 지키지 않으며, 흰 모시의 험소한 옷에 검은 비단으로 허리를 묶고 맨발로 다니는데, 간혹 신발을 신은 자도 있다. 거처할 집을 자신이 만들며 아내를 얻고 자식을 기른다. 그들은 관청에서 기물을 저 나르고 도로를 쓸고 도랑을 치고, 성과 건물(城室)을 수축(修築)하는 작업에 종사한다. 변경에 경비할 일이 있으면 단결해서 나가는 데 비록 달리는 데 익숙하지 않지만 자못 씩씩하고 용감하다. 군대에 가게 되면 각자가 양식을 마련해 가기 때문에 나라의 경비를 소모하지 않고서 전쟁할 수 있게 된다. 듣기로는 중간에 거란(契丹)이 고려인에게 패전한 것도 바로 이 무리의 힘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실제 형기(刑期)의 잔여기간이 남은 도역인(徒役人)이나 오랑캐[夷人]인데, 그들이 수염과 머리를 깎았다는 이유로 ‘화상(和尚)’이라고 부른다.¹⁴⁾

14)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제18권, “在家和尚, 不服袈裟, 不持戒律, 白紵窄衣, 束腰阜帛, 徒跣以行, 間有穿履者. 自爲居室, 娶婦鞠子. 其於公上, 負載器用, 掃除道路, 開治溝洫, 修築城室, 悉以從事. 邊陲有警, 則團結而出, 雖不閑於馳逐, 然頗壯勇. 其趨軍旅之事, 則人自裹[裹]糧, 故國用不費, 而能戰也. 聞中間契丹, 爲麗人所敗, 正賴此輩. 其實刑餘之役人, 夷人, 以其髡削鬚髮, 而名和尚耳.”

위에서 인용한 서공의 『고려도경』에 묘사된 재가승에 관한 기록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서공이 북경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승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개성에 한 달 남짓 머물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려도경』의 저자 서공이 송나라의 사신이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는 거란(契丹 = 遼)이 고려를 침공했을 때, 크게 패배한 원인이 재가승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서공의 기록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서공이 『고려도경』에서 재가승에 관해 언급한 부분을 검토해 보자.

첫째, 서공은 “그들이[재가승] 관청에서 기물을 저 나르고 도로를 쓸고 도랑을 치고, 성과 건물[城室]을 수축(修築)하는 작업에 종사한다.”¹⁵⁾라고 하였다. 이 기록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재가승들은 국가에서 부과한 부역을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둘째, 서공은 재가승과 둔전병(屯田兵)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둔전병이란 변경(邊境)에 주둔·정착시켜 평시에는 농사를 짓게 하고, 전시에는 전투병으로 동원하였던 군사를 말한다. 그래서 그는 “군대에 가게 되면 각자가 양식을 마련해 가기 때문에 나라의 경비를 소모하지 않고서 전쟁할 수 있게 된다.”¹⁶⁾라고 하였다. 이것은 둔전병을 두고 한 말인 듯하다. 그러나 신라시대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승려들이 종군(從軍)한 적이 있다. 이때의 종군이란 전투병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에 필요한 보급품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승려들이 담당하였다.¹⁷⁾ 김기철(金基哲)은 『관북대관(關北大觀)』에서 “재가승을 승군(僧軍)이라 하는 전설이 있으나, 어떠한 실적이 없고 무기를 가진 형적(形跡)도 없

15)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제18권, “其於公上, 負載器用, 掃除道路, 開治溝洫, 修築城室, 悉以從事.”

16)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제18권, “其趨軍旅之事, 則人自裹[裹]糧, 故國用不費, 而能戰也.”

17) 「원효와 유심주의」, 『朝鮮佛教』 제3호(1924. 7. 11), p.5.

다고 한다.”¹⁸⁾라고 하였다. 또 노일(盧鎰)의 보고서에서도 “전시에는 군수품(군막 등)을 실어 나르면서 전방에 나섰고”¹⁹⁾라고 하였다. 재가승이 전시에 동원되더라도 군수품을 운반하는 등 군에 협조하는 것일 뿐, 직접 전투에 관여하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거란이 고려를 침공했을 때, 재가승 때문에 패전했다는 것은 왜곡된 것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서궁은 재가승이 승려가 아니고, “형기(刑期)의 잔여기간이 남은 도역인(徒役人)이나 오랑캐[夷人]인데, 그들이 수염과 머리를 깎았다는 이유로 ‘화상(和尚)’이라고 부른다.”²⁰⁾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그러나 서궁이 재가승을 ‘형기의 잔여기간이 남은 도역인이나 오랑캐[夷人]’로 오해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여러 문헌이나 일제강점기에 조사한 보고서에서도 재가승이 범법자나 오랑캐였다는 기록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이재욱은 『재가승만고』에서 서궁이 말한 ‘형기의 잔여기간이 남은 도역인’이라는 설은 그 기록이 오래되었고 당시의 정치적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한 번 생각해 볼 만한 학설이라고 하였다.²¹⁾ 이재욱은 재가승의 유래에 대한 세 가지 학설, 즉 노예설(奴隸說=僧軍說), 승려설(僧侶說), 번호설(蕃胡說 : 북방에 있는 변경 오랑캐라는 설)을 소개하고 있다.²²⁾ 그는 서궁이 말한 재가승의 유래를 노예설 혹은 승군설로 보았다.²³⁾ 이재욱은 서궁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불교의 승려가 아니라 국법

18) 金基哲, 『關北大觀』, 함북인쇄소, 1927.

이재욱, 『재가승만고』, p.11에서 재인용.

19) 盧鎰, 「淸津府一方面茂山郡會寧郡鍾城郡穩城郡各管內及間島古蹟調査の顯末」, 「戰時則運搬軍需(軍幕等)而在前驅[駟].」

今西龍, 「在家僧に關する調査一斑」, p.2에서 재인용.

20)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제18권, “其實刑餘之役人, 夷人, 以其髡削鬚髮, 而名和尚耳.”

21) 이재욱, 『재가승만고』, p.8.

22) 이재욱, 『재가승만고』, p.7.

을 어긴 범법자 혹은 전쟁 포로로 복역 중인 둔전병으로 이해한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 같다. 함경북도 사회과에서 조사한 보고서에서도 『고려도경』에 묘사된 바와 같이 ‘형기의 잔여기간이 남은 도역인’을 머리와 수염을 깎았다고 해서 승려의 존칭인 ‘화상(和尚)’으로 호칭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⁴⁾

함경북도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변경 지역이기 때문에 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여진족(女眞族)은 종래 북경 일대에 두루 거주하며 변경의 백성을 괴롭혔다. 그래서 고려 예종(睿宗) 2년(1107)에 윤관(尹瓘)이 여진을 크게 쳐부수었다. 이처럼 여진족은 그 근거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내침하여 북경의 정세를 소란케 하였다.²⁵⁾ 이러한 이유로 조선시대의 관리나 유자(儒者)들은 북방 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던 재가승이 여진족의 후예라고 여기고, 이들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능화(李能和, 1869~1943)는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에서 재가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해동의 승려 역사(僧史)에 하나의 기이한 일이 있다. 즉 북쪽 변경의 재가승인데, 이들은 아내를 두고 고기를 먹는 데 걸림이 없다. 조선의 정토진종(眞宗)이라고 할 수 있다. 함경북도의 경흥(慶興), 경원(慶源), 회령(會寧), 부령(富寧), 경성(鏡城), 온성(穩城) 등 국경 근처의 여러 고을에는 특별한 승려들이 있는데, 산골짜기에서 태어나 집단을 이루고, 스스로 마을을 이루고 있으며, 그들이 거주하는 촌락을 산문(山門)이라 부른다. 반드시 한곳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불전(佛殿)이 있고, 혼례나 상례를 사찰에서 행하는데, 이들을 ‘재가승’이라 부른다. 혈맥(血脈)과 법맥(法脈) 둘을 갖추어

23) 이재욱, 『재가승만고』, p.8.

24) 「咸北の在家僧(1)」, 『朝鮮佛敎』 제11호(1925. 3. 11), p.11.

25) 이재욱, 『재가승만고』, p.6.

상속하며, 좋은 풍속을 구별함으로써 잡다한 것을 만들지 않고 마을을 계획하여 번성하여 살고 있다.²⁶⁾

이능화는 한국불교의 승단사[海東僧史]에서 재가승 집단의 출현은 하나의 기이한 현상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재가승 집단이 출현한 것을 조선의 정토진종이 출현한 것으로 이해했다. 왜냐하면 일본의 정토진종은 일찍부터 승려의 결혼과 식육을 허용해 왔기 때문이다. 불교교단사(혹은 불교승단사)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불교에서 재가승 집단, 즉 재가승단이 출현한 것은 중대한 역사적 사실이 아닐 수 없다.

2. 조선 후기 문헌에 나타난 재가승

조선 후기의 관리나 지식인들 사이에는 청(淸)의 앞선 문물을 배우려는 북학(北學)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반발로 북방의 옛 영토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북방 지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함경북도 군현의 읍지(邑誌)를 편찬하거나 이 지역 전반에 대한 정보나 견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술들이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홍양호(洪良浩, 1724~1802)가 『삭방풍토기(朔方風土記)』와 『북새기략(北塞記略)』을 찬술하였다. 우하영(禹夏永, 1741~1812)이 『시무책(時務策)』을 저술하였고, 홍의영(洪儀泳, 1750~1815)이 『북관기사(北關記事)』를 편찬하였다.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이 『북행수록(北行隨錄)』을 저술하였고, 정윤용(鄭允容, 1792~1865)이 『북로기략(北路紀略)』을 찬술하였다. 한편 19세기 말에는 두만강 너머 북간도(北間島) 지역의 영유

26)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京城: 新文館, 1918, “海東 僧史, 有一奇事, 卽北邊之在家僧是, 蓄妻食肉, 俱爲無碍, 可謂朝鮮之眞宗也. 咸鏡北道慶興, 慶源, 會寧, 富寧, 鏡城, 穩城等沿邊各郡, 特有一種僧侶, 群聚居于山谷中, 自成村落, 其所居村落名山門, 必有公共佛殿一處, 婚喪之禮, 行於寺, 號曰在家僧, 血脈法脈, 兩俱相續, 以別良俗, 不令雜處, 劃定村落, 使有增殖.”
李在郁, 『在家僧漫考』, p.7에서 재인용.

권을 두고 청나라와 분쟁이 발생하자 이범윤(李範允, 1863~?)과 김노규(金魯奎)가 『북여요선(北興要選)』을 편찬하였다. 이러한 여러 저술에 함경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재가승에 관해 언급한 부분이 나타난다.

조선 후기 북방 지역의 정세와 현황은 서영보(徐榮輔, 1759~1816), 심상규(沈象奎, 1766~1838) 등이 왕명을 받아 지은 『만기요람(萬機要覽)』²⁷⁾의 「육진개척조(六鎭開拓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른바 김종서(金宗瑞)가 세종 16년(1414)에 경원(慶源), 회령(會寧), 종성(鍾城), 은성(穩城), 경흥(慶興), 부령(富寧) 등 육진(六鎭)을 설치하여 여진족의 침입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시대의 관리나 유생들은 북방 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던 재가승이 여진족의 후예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여진유민설(女眞遺民說)은 근거가 박약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²⁸⁾

홍양호(洪良浩)가 지은 『북새기략(北塞記略)』의 「공주풍토기(孔州風土記)」에 “산승(山僧)은 집에 살면서 아내를 두고 고기를 먹는 자가 많으며, 그 자손이 대를 이어 승려가 된다. 돈의 사용을 금하여 베나 면을 화폐로 쓴다.”²⁹⁾라고 되어 있다.

한편 이재욱은 『재가승만고』에서 정운용(鄭允容, 1792~1865)이 지은 『북로기략(北路紀略)』과 우하영(禹夏永, 1741~1812)이 지은 『시무책(時務策)』의 「육진승도의(六鎭僧徒議)」의 기록을 근거로 ‘번호설(蕃胡說)’을 소개하고 있다. ‘번호설’이란 재가승의 유래가 북방 변경의 오랑캐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북로기략』은 정운용이 그의 사촌 형인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을 따라 1829년부터 1830년까지 함경도 지방으로 갔

27) 『만기요람(萬機要覽)』은 순조(純祖, 1790~1834) 때 서영보(徐榮輔, 1759~1816), 심상규(沈象奎, 1766~1838) 등이 왕명을 받아 왕이 나라의 군정(軍政)과 재정(財政)을 파악하도록 만든 책이다.

28) 이재욱, 『재가승만고』, p.7.

29) 홍양호, 『北塞記略』 「孔州風土記」, “山僧多在家, 挾妻食肉, 子孫繼襲爲僧. 禁用錢, 以布緜爲貨.”

을 때 이곳을 둘러보고 지은 저술이다.³⁰⁾ 정윤용은 이 책에서 재가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승려는 모두 재가로 아내를 얻어 자식을 낳으며,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는데, 이를 재가승이라 부르고 승려는 세습된다. 혼인하는 것이 평민과 같이 서로 통한다. 혹은 재가승이라 하는데, 오직 서복 변경에만 있고, 옛 번호(藩胡 : 북방에 있는 변경 오랑캐)가 있던 근처다. 이것이 아마도 그 더러운 풍습이 지금이나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머리를 깎고 우리의 경계에 살기 때문에 승려라 하지만 사교(司敎)의 땅이다. 마땅히 변해야 한다. 명천(明川) 이남에도 사찰과 승려가 살기 시작하였다.³¹⁾

정윤용은 재가승이 오직 서복 변경에만 있고, 옛 번호(藩胡)가 있던 근처에 살고 있으므로 오랑캐라고 오해한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 또한 그는 재가승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사교(司敎)의 땅’, 즉 천주교의 땅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재가승이 명천군(明川郡) 이남에도 살기 시작한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이것은 불교에 적대적이었던 유자(儒者)의 전형적인 시각이다. 또한 우하영은 『시무책』의 「육진승도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북로 두만강 연변의 육진 및 삼수(三水) · 갑산(甲山)의 여러 고을과 그 경계는 옷고름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물이 좁고 여울이 얕으며 사이에 여울목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서로의 백성들은 사냥하고 몰래 왕래하는 폐단으로 인해 여러 가지를 금지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해마다 시장을 열어 상대방과 통화를 교환하고 여러 해 동안 시장 문을 왕래하고

30) 權恩志, 「鄭允容의 『北路紀略』 研究」, 『민족문화연구』 제95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p.115.

31) 鄭允容, 『北路紀略』, “僧皆在家, 娶妻生子, 食肉飲酒, 謂之在家僧, 世襲爲僧. 婚嫁如平民相通. 或曰在家僧, 惟西北邊境有之, 舊之藩胡所住近處也. 此無乃焉染其俗於而至今而未之變耶. 但以雜髮而居我境故謂之僧耳, 司敎之地, 宜有以變之也. 明川以南始有寺僧.”

있는 자는 우리나라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맞은편에서 술을 권할 때는 적으면 오차가 없지만, 그 복장은 나와 다르기에 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만약 그가 흰옷을 입고 승려로 바뀌 우리 경계선을 넘어 본국의 승려에게 행적을 가장한다면 식별할 수 없을 것이다. 승려와 속세의 불명(不逞)한 무리에서 벗어나 사찰을 도입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이로운 것을 쫓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인정이 같은 것이다. 변방의 금지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있으면 잠재 세력이 전입하여 그 세력을 공고히 한다.³²⁾

우하영이 왕에게 상소한 내용 중에 국경 근처에 적들이 승려로 변장하여 우리의 경계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원한·불만·불평 따위를 품은 자들이 절에 들어올 수 있으므로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조정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도 유교적 가치를 기준으로 불교를 낮추어보는 조정 관리의 시각이다.

북방의 변경 지역은 지리적으로 중앙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완벽하게 미치지 못한다. 이런 지리적 특성상 재가승들이 집단으로 마을을 이루고 자급자족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정의 관리나 유생들의 관점으로 보면 집단을 이루고 사는 재가승들이 눈엣가시였을 수도 있다. 우하영이 북방 변경의 경계를 핑계로 재가승 집단을 제거해야 한다고 왕에게 상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로 미루어 재가승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둔전병(屯田兵)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32) 禹夏永, 『時務策』 「六鎮僧徒議」, “北路, 豆滿江沿邊, 六鎮及三甲列邑, 與彼界隔一衣帶而。水狹灘淺, 間多[원문에는 有]徒揭之處, 彼我人民, 因其採獵, 潛越往來之弊, 種種難禁, 況且逐年開市, 與彼通貨, 彼人之多年來往於市門者, 能爲我國之言, 對面酬酢, 少無差誤, 但其服着與我有異, 故能辨[원문에는 卞]爲彼人, 今所隱憂者, 彼若換着一白衲潛越我界, 混跡於本國僧徒則, 無以辨[원문에는 卞]別, 脫有僧俗中不逞之徒, 引入寺刹闌問販貨, 一過沿江之邑則, 雖遍行國中, 孰知其爲彼人也哉, 何況逐利興商彼我人情之所同一, 有邊禁之疎虞則, 潛機轉入固其勢也。”

이재욱, 『재가승만고』, p.10에서 재인용.

조선시대의 불교는 신라·고려불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침체·쇠퇴해져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원인을 억불(抑佛)과 배불(排佛)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고려 후기 불교의 타락상을 보면 조선시대의 억불과 배불은 불교 내부의 인과론적 결과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³³⁾ 그 결과 승려의 신분은 천민의 하나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즉 “사회로부터 승려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였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승려에게 합장 예배하는 자가 없었다. 국가에서도 승려를 노예처럼 여겨 도성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이른바 사회 전체가 승려를 학대하는 분위기였다.”³⁴⁾ 더욱이 “재가승은 여덟 천민[八賤]보다 하위의 신분이었다.”³⁵⁾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방 지역에 재가승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지리적으로 척박한 북방 변경에 재가승 촌락을 형성하고, 온갖 사회적 멸시와 핍박은 물론 각종 부역에 시달리면서도 결코 불교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혈육을 통해 대대로 범맥을 계승하였다. 조선시대 조정의 관리나 유생들은 이들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재가승이 우리 민족이 아니라 여진족의 후예라고 깎아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들의 조상이 여진유민(女眞遺民)이었다 할지라도 이미 오래전에 한민족(韓民族)에 동화되었다.³⁶⁾ 그런데도 굳이 이들을 여진족의 후예라고 낙인을 찍어 혐오의 대상으로 삼았던 까닭은 당시 척불(斥佛)의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리적 특성상 혹독한 겨울철을 견뎌야 한다. 겨울철 생존을 위해서는 육식하

33) 이봉춘,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 민족사, 2015, pp.26-28.

34) 中村三笑, 「僧侶の弱點と無自覺」, 『朝鮮佛教』 창간호(1924. 5. 11), p.2.

35) 「咸北の在家僧(2)」, 『朝鮮佛教』 제12호(1925. 4. 11), p.10.

36) 조선시대 함경도 북부에 거주하던 여진족은 한민족(韓民族)에 동화되었다. 이들은 정체성이 사라져 1960년대에 한민족으로 편입되어 사라졌다. <https://ko.wikipedia.org/wiki/여진> (검색: 2022. 10. 15)

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다만 고기를 먹는다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정당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Ⅲ. 일제강점기 재가승에 관한 조사

1. 재가승에 관한 조사 보고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북방 변경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재가승에 관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조사 보고서에는 노일(盧鎰)의 「淸津府一方面 … 及間島古蹟調査の顛末」,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在家僧に關する調査一斑」, 김기철(金基哲)의 『관북대관(關北大觀)』(함북인쇄소, 1927), 「咸北の在家僧」 등이다.

첫째, 함경북도 도청 서기였던 노일(盧鎰)이 1916년 8월 12일 「淸津府一方面 … 及間島古蹟調査の顛末」이라는 긴 제목의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내용 일부가 이마니시 류의 「在家僧に關する調査一斑」에 인용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재가승에 관해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기에 김종서(金宗瑞)가 여진을 몰아냈다. 그 궁핍하여 견지 못하는 자는 귀화시키고 머리를 깎아[斷髮] 구별하였으며, 머리를 깎은 자는 사찰에 귀속시켰다. 이들을 ‘재가승’이라고 한다. 전시에는 군수품(군막 등)을 실어 나르면서 전방에 나섰고, 평소에는 누른빛의 종이[黃紙]를 만들어 관용에 사용하였다. 극히 비천한 것은 평민들과 동등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하며 토호들도 모두 노예로 그들을 이용하였다. 여러 가지 토색(討索)은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서북 경략사(經略使)에게 남아 있는 천역(賤役)을 어윤중(魚允中)이 낡은 것은 없애고 새롭게 고쳤다. 그러나 관습은 여전하다. 관리가 신역을 회복하려면 자기 힘으로 서울 관아에 하소연하였다. 아무리 민간이 종이를 만드는 노역이라도 향역(鄉役)을 면할 수 없다.³⁷⁾

위 내용은 조선시대 관리나 유생들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처음 김중서(金宗瑞, 1382~1453)가 여진족의 유민을 귀화시켜 머리를 깎아 사찰에 배속시켰는데, 이들이 ‘재가승’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여진유민설(女眞遺民說)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시대에 이미 재가승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여진유민설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노일의 보고서에서 재가승이 평시에는 누른빛의 종이[黃紙]를 만들어 관청에 헌납하였고, 전시에는 군수품(군막 등)을 실어 나르는 일에 동원되었다고 기술한 부분은 사실로 여겨진다. 황지는 함경북도 지방에서 재배되는 ‘귀리’로 만든 종이다. 재가승들은 이 황지를 조정에 바치는 것으로써 세금을 대신하였다. 그런데 노일은 재가승들에게 황지 헌납 외에 추가로 향역(鄉役)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재가승들은 전시에 직접 전투에 참전한 것이 아니라 보급품 지원 등의 업무에 동원되었다.

둘째, 이마니시 류(今西龍, 1875~1932)의 「在家僧に關する調査一斑」은 총독부의 촉탁으로 재가승에 관해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음을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조선총독부 고적(古蹟) 조사원으로 촉탁받은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대정(大正) 3년(1914) 11월에 함경북도 순회 중 옛 육진(六鎭)³⁸⁾ 지방에 이르렀을 때, 재가승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을 기록한 것

37) 盧鎰, 「清津府一方面茂山郡會寧郡鍾城郡穩城郡各管內及間島古蹟調査の顛末」, “初金宗瑞之驅出女眞也, 其窮不能徒去者, 歸化則斷髮區別之, 旣斷髮則, 屬之寺刹, 謂之在家僧, 戰時則運搬軍需(軍幕等)而在前驅[駟], 平時則, 造黃紙以供官用, 極賤不可與平民同等故, 土豪亦皆以奴隸使之, 諸般討索, 罔有紀極, 距今前西北經略使魚允中, 革祛其賤役, 然慣習猶存故, 官每欲復其身役則, 渠自呼訴于京司, 僅民造紙之役, 然在鄉役不得免焉.”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在家僧に關する調査一斑」와 이재욱의 『재가승만고』에서도 이 고적 조사 보고서는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38) 조선 세종 때, 북면에 설치한 여섯 진을 말한다. 즉 경원(慶源), 경흥(慶興), 부령(富寧), 온성(穩城), 종성(鍾城), 회령(會寧) 등이다.

인데,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미진한 부분이 많은 기사이며 단편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 사실에 관한 연구를 위한 자료를 급히 게재한다.³⁹⁾

이마니시 류는 『북로기략(北路紀略)』과 노일(盧鎰)의 보고서를 먼저 소개하고, 이어서 부령군(富寧郡) 군참사(郡參事) 박병조(朴秉朝)와의 면담, 회령군(會寧郡) 봉의면(鳳儀面) 삼방동(三防洞) 재가승 강제훈(姜齊訓, 66세)과의 면담, 회령군 봉의면 면장 등 여러 사람과의 면담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셋째, 일제강점기 김기철(金基哲)은 『관북대관(關北大觀)』에서 재가승의 풍습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일부가 이재옥의 『재가승만고』에 인용되어 있다.

그들은 원래 여진족의 귀순한 종족이라 하여 일반인이 그들을 노예시(奴隸視) 한다. 그들은 마을 전체의 공동 사찰을 건설하여 마을 전체가 조선 제사를 받들거나 불경을 읽는 자들이 없다. 단지 불전에 예배할 뿐이며 그들은 원래 성명을 갖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임의로 성명을 지어 사용한다. 또 재가승을 승군이라 하는 전설이 있으나, 어떠한 실적이 없고 무기를 가진 형적(形跡)도 없다고 한다. 또한 재가승은 음성과 자태가 조선 내지인(內地人)과 달라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주거의 입구에는 돌담[石墻]을 설치한다. 이것은 다른 마을과 구별함이 그 목적이며, 만일 그 구역을 넘어서 거주하면 조선 내지의 양반에게 포획되어 노예가 된다고 한다.⁴⁰⁾

김기철이 『관북대관』에서 재가승에 관해 언급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먼저 일반인들이 재가승을 여진족 출신이라 하여 노예시 한다거나 조선 제사를 받들거나 불경을 읽는 자들이 없다고 말한 것은, 그의 주관적인 편견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려시대 이전부

39) 今西龍, 「在家僧に關する調査一斑」, 『朝鮮彙報』(1915년 3월호), p.1.

40) 金基哲, 『關北大觀』, 함북인쇄소, 1927.
이재옥, 『재가승만고』, p.13에서 재인용.

터 이미 재가승 집단이 거주하고 있었고, 수백 년이 지난 일제강점기까지 조선에 동화하지 못하여 내지인과 음성이나 자태가 다르다고 묘사한 것은 과장된 표현인 듯하다.

또 재가승 촌락의 입구에 돌담[石牆]을 설치한 것은 다른 마을과 구별하기 위한 것인데, 그 구역을 넘어서 거주하면 조선 내지의 양반에게 포획되어 노예가 된다는 기사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 노예제가 폐지된 것이 언제인데, 일제강점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김기철의 『관북대관』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는 재가승이 승군(僧軍)이 아니라는 지적과 무기를 소지한 흔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 성명을 갖지 않았으며, 근래에는 임의로 성명을 지어 사용한다.”라는 부분은 불교에서는 법명과 법호를 사용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는 사람임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재가승들이 마을 전체에 공동 사찰을 건립하여 같이 신행한다는 지적은 사실인 것 같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가승 마을 [在家僧村]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2. 함북의 재가승 현황

「咸北の在家僧」이라는 제목의 글은 함경북도 도청에서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朝鮮佛敎』 제11호(1925년 3월 11일)와 제12호(1925. 4. 11)에 실려 있다. 이 글의 서두에 “이 글은 경도제대(京都帝大) 교수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朝鮮の在家僧』⁴¹⁾이라는 제목으로 집필한 것을 기초로 함경북도 사회과에서 조사한 것”⁴²⁾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咸北の在家僧(1)」의 내용은 이마니시 류의 견해를 그대로 소개하고 있으

41) 이 책은 今西龍, 「在家僧に關する調査一斑」, 『朝鮮彙報』(1915년 3월호)를 가리키는 것 같다.

42) 「咸北の在家僧(1)」, 『朝鮮佛敎』 제11호(1925. 3. 11), p.11.

며, 「咸北の在家僧(2)」에서는 함경북도 사회과에서 관내에 있는 재가승의 현황을 조사한 내용이다. 여기서는 「咸北の在家僧(2)」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함경북도 부령군(富寧郡)과 회령군(會寧郡) 등에 흩어져 있는 재가승은 여러 경로를 통해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공통점은 이들이 여진족(女眞族)의 후예(後裔)라는 것이다. 그런데 함경남도 이남의 여진인은 빨리 조선에 동화했기 때문에 귀환할 필요 없이 정착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지만, 육진(六鎭) 지방은 여진의 피가 많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피가 섞이지 않았다. 회령 부근의 조선인은 남조선에서 이주해 왔다고 하는 구전이나 기록 가보 등의 근거가 있다. 여진족이 지나(支那) 중원(中原), 또는 만주(滿洲)로 이주할 때, 강변에 남겨진 사람은 재가승이 되어 부락(部落)을 형성하고 정착하여 머물렀다고 한다. 조선시대 승려는 팔천(八賤)에 속해 있었다. 재가승은 팔천보다 더 하위의 신분이었다. 조선은 5백 년을 통해 극단적으로 배불(排佛)을 강행하였으므로 함경북도와 같이 경원(慶源)의 강수사(降水寺) 이외에는 대개 작은 불당식의 절만 있었고, 정조(正祖) 때에 저술된 『북로기략』에도 명천(明川) 이남에 사찰과 승려(寺僧)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명천 이북은 불교를 믿는 특별한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곧 재가승촌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들을 재가승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아마도 옛날부터 있었던 재가승의 이름이 남아 지금에 이른 것일 것이다.⁴³⁾

본도(함경북도)에 재가승 마을이라고 부르는 것이 30여 개나 되지만, 골이 깊고 험준한 곳에 있고, 마을의 입구에는 석원(石垣, 돌담)을 쌓았는데 이 석원으로 통상 마을을 구별한다. 작은 마을은 최저 5호이고, 큰 마을은 30호이다. 회령군(會寧郡)에 가장 많고, 그다음은 부령군(富寧郡)이다.⁴⁴⁾ 이상은 대정 12년(1923) 말 함경북도 사회과에서 조사한 것

43) 「咸北の在家僧(2)」, 『朝鮮佛敎』 제12호(1925. 4. 11), p.10.

44) 「咸北の在家僧(2)」, 『朝鮮佛敎』 제12호(1925. 4. 11), p.10.

이다.

그 후 이재욱이 1935년 함경북도 지방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재가승을 조사하였는데, 재가승의 호수와 인구수는 약간 다르다. 자세한 호수와 인구수는 이재욱의 『재가승만고』에서 도표로 표시하고 있다.⁴⁵⁾ 그러나 이러한 호수와 인구수는 그 이후에도 급격하게 변화하였을 것으로 예측된다.

IV. 재가승 출현의 사상적 배경

1. 원효의 유심주의

고려시대 재가승들은 어떤 사상적 배경에서 출현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왜 집단생활을 하였는가? 일제강점기 1922년 설립된 (재)조선불교중앙교무원에서 발행한 『朝鮮佛教』 제3호(1924. 7. 11)에 실린 「元曉와 唯心主義」라는 글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 글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元曉의 唯心主義는 種種히 現實이 되었다. (1) 瑤石宮夫人을 娶하여 子를 生하니 그 子가 窶[곤] 薛聰이라 諡稱은 儒學을 修하며, 國學을 成하여 大學者가 되었다. (2) 俗衣를 服하며 魚肉을 食하였다. 窶 승려들이 法衣를 服하며 肉食을 禁하기를, 元曉는 이를 改革하였다. (3) 從軍하였다. 僧侶이지만 國家戰爭에 際하여는 金庾信의 軍中에 從事하여 軍事에 協議하였다. 이 상에 娶妻肉食의 等이 다 當時僧侶의 禁物이었으나, 元曉는 此等形式이 다 無用의 것임을 認하였다. 故로 元曉는 오직 心을 主할 뿐이었다.⁴⁶⁾

45) 이재욱, 『재가승만고』, p.12 참조.

46) 「元曉와 唯心主義」, 『朝鮮佛教』 제3호(1924. 7. 11), p.5.

위 내용은 원효의 유심주의가 고려시대 재가승이 출현하게 된 사상적 배경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고려시대 승려들이 취처육식(娶妻肉食)을 하고, 승려이지만 국가의 전쟁에 종군(從軍)한 것도 원효의 유심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오히려 신라에 전래한 밀교(密敎, Esotericism)의 영향을 받아 재가승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2. 밀교의 영향

필자는 한반도에 재가승이 출현하게 된 사상적 배경은 밀교의 전래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밀교, 특히 잡밀(雜密)에서는 계율을 엄매이지 않고, 오직 다라니(陀羅尼, dharaṇī, 神呪) 지송(持誦)만으로도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⁴⁷⁾ 밀교의 수행은 처음부터 출가와 재가, 즉 승속의 구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밀교의 영향으로 한국불교에서도 재가승이 출현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에서 대승불교 성립 초기부터 재가인(在家人)의 세속적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할 요청 때문에 브라만교(Brahmanism)에서 성행하던 기도(祈禱)와 주술(呪術)을 수용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주술적인 경향은 더욱 심화하였고, 나중에는 무수한 다라니 경전이 출현하게 되었다.⁴⁸⁾

밀교가 처음 신라에 전해졌을 때, 무속신앙의 섭화(攝化)를 위해 밀교의 성격을 띤 신앙 의례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신라 초기의 밀교를 계승한 자가 명랑(明朗)이다. 그 뒤 신라 중기에 만다라 밀교[純

47) 雜密에서는 계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純密에서는 계율을 중요하게 여긴다.

48) 高翊晉, 『韓國古代佛敎思想史』, 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p.383.

密]가 전래하여 잡밀(雜密)과 순밀(純密)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되었다.⁴⁹⁾

이처럼 신라 초기의 밀교는 밀본(密本, 善德王代), 명랑(明朗, 文武王代), 혜통(惠通, 孝昭王代) 등에 의해 발전하였지만, ‘잡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새로운 밀교 경전이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순밀이 신라에 전해져 대일여래(大日如來)의 삼밀가지(三密加持)라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⁵⁰⁾ 중인도 출신의 선무외(善無畏, Subhakara-simha, 637~735)가 『대일경(大日經)』을 번역하였고, 남인도 출신의 금강지(金剛智, Vajira-bodhi, 669~741)가 『금강정경(金剛頂經)』 등을 번역하였다. 이로써 『대일경』에 의한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荼羅)와 『금강정경』에 의한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荼羅)가 신라에 전해져 신라불교는 더욱 풍성해졌다.

그 후 명랑 계통의 밀교가 고려초기에 신인종(神印宗)을 형성하게 되었고, 혜통 계통의 밀교는 ‘총지종(摠持宗)’으로 발전하였다. 이른바 명랑의 ‘신인종’이 성립한 시기는 고려 태조 때이고, 신라에 계율 사상이 전해져 ‘남산종(南山宗)’이 성립한 시기도 고려 태조 때이다.⁵¹⁾ 따라서 혜통 계통의 총지종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성립되었을 것이다.⁵²⁾

한편 고려시대의 불교는 12세기 후반의 무신란(武臣亂)을 전후하여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⁵³⁾ 이른바 태조(太祖, 877~943)부터 의종(毅宗, 1127~1173)까지의 250년간이 전기에 해당하고, 명종(明宗, 1131~1202)부터 고려말까지는 후기에 해당한다. 전기에는 신라말에 전래한 선(禪)과 교(敎)가 융성하였지만, 후기에는 불교가 쇠퇴하였다. 그리고 고려불교

49) 高翊晉, 『韓國古代佛教思想史』, p.384.

50) 高翊晉, 『韓國古代佛教思想史』, p.447.

51)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卷中, pp.77-78, “高麗之代有開國律寺, 太祖所創也. 又李齊賢重修記, 都城東南有山焉. 清泰八年太祖用術家言, 作寺以處方袍之學律乘者, 名之曰開國律寺, 火于壬辰戒壇墟矣, 南山宗師木軒丘公修而新之云云.”

52) 高翊晉, 『韓國古代佛教思想史』, p.461.

53) 蔡尙植, 『高麗後期佛教史研究』, 一潮閣, 1991, p.2.

는 선과 교의 회통(會通)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밀교화(密敎化)’였다.⁵⁴⁾ 한마디로 고려시대 불교의 특성은 기복양재(祈福禳災)와 진호국가(鎭護國家)의 불교였다.⁵⁵⁾

이상과 같이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밀교 종단이 존속하고 있었다. 이들이 북방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던 재가승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밀교의 다라니 수행에 따르면, 재가승이 출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⁵⁶⁾ 실제로 티베트불교의 닝마파와 까꾸파에서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수행에 전념하는 재가승들이 현존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불교에서도 밀교 계통의 진각종(眞覺宗)·총지종(摠持宗)·진언종(眞言宗) 등은 재가승단(在家僧團)이다. 이에 대해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현재의 밀교 계통인 진각종·총지종·진언종 등과 함경북도에 거주하고 있던 재가승 집단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다만 함경북도 지방에 거주하던 재가승 집단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운영체제는 현재의 티베트불교의 오명불학원(五明佛學院)이나 서울 서대문구 소재 봉원사(奉元寺)와 매우 흡사하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보다는 재가승 집단은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연구가 요구된다.

3. 함경북도 재가승과 현재 재가승과의 관계

필자는 “재가승이란 비록 가정을 가지고 때로 어육(魚肉)을 먹지만,

54) 鄭泰嫻, 『한국불교융통사』, 정우서적, 2002, p.129.

55) 金煥泰, 『韓國佛敎史概說』, 經書院, 1986, p.119.

56) 이것은 사상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사적으로는 여진족과 관련이 있고, 여진족은 원나라, 몽고, 티베트불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방의 재가승과 이들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해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사문으로서의 위, 즉 삭발염의하고 음계(淫戒)를 제외한 나머지 계율을 지키면서 자신의 수행은 물론 의례 집전 등 교화 활동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함경북도 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던 재가승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현존하는 문헌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조사 보고서도 함경북도 지역에 거주하던 재가승에 관한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어서 그들의 생활상을 파악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함경북도의 재가승과 일제강점기에 새로 나타나기 시작한 세칭 대처승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김순석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대처승(帶妻僧)’이란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대처승은 일제강점기 일본불교의 유입으로 수용되었다. 대처승은 일본에서 1872년 공식적으로 허용되었고, 그 후 일본불교에서 계율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 하지만 한국불교는 일본불교가 유입되기 전까지 승려는 결혼하지 않았으며, 육식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 교리이기 때문이다.⁵⁷⁾

위 설명 가운데 일부는 사실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재가승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었다. 함경북도 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던 재가승과 재가승단은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 아니다.

다만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아 취처(娶妻)한 승려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송광사지』에 따르면, “1912년 임자(壬子)부터 본사 승려의 취처가 개시되었다.”⁵⁸⁾라고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1910

57) 김순석, 「대처승(帶妻僧)」(201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8273>) (검색: 2022. 10. 19)

58) 林錫珍 編, 『松廣寺誌』, 松廣寺, 1965, p.196.

년부터 1926년까지 사원 생활 구조가 바뀌어 불교 본연의 상태가 아닌 기이한 현상의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다. 초기에는 승려의 결혼이 음성적으로 행해졌으나, 19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⁵⁹⁾ 이런 와중에 1926년 5월 백용성(白龍城, 1863~1940)은 석왕사 주지 이대전(李大典)과 해인사 주지 오회진(吳會眞) 등 127명의 서명을 받아, 대처식육(帶妻食肉)을 금지해 달라는 건백서(建白書)를 조선 총독에게 제출하였다. 이 건백서가 바로 현대 한국불교 승단정화의 효시이다.⁶⁰⁾ 그가 건백서를 제출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대처한 승려는 본산(本山)의 주지로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던 당시의 사법(寺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유학을 마치고 자신의 소속 본산으로 돌아가 주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대처한 승려의 주지 취임을 제한하고 있던 사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법 개정의 진정서를 총독부에 제출하였다.⁶¹⁾

그러나 백용성의 2차 건백서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는 1926년 11월 대처식육을 승려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논리로 이를 허용하였다. 결국 1926년 말 총독부에서 사법 개정(寺法改正)을 승인함으로써 해방 직전에는 90% 넘는 승려가 결혼한 상태였다. 조선총독부에서 사법을 개정하여 승려들에게 대처식육을 승인한 것은 조선불교를 일본 불교화하려는 정책의 하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 아래에서 1954년부터 ‘정화불사(淨化佛事)’라는 이름으로 비구·대처 간의 분쟁을 일으켜 불교계에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 그 후유증은 지금도

59) 韓善光, 「白龍城禪師의 佛教淨化運動」, 『大覺思想』 제7집, 대각사상연구원, 2004, p.40.

60) 이수창(마성), 「백용성의 승단정화 이념과 활동」,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8, pp.544-545

이수창(마성), 「龍城震鐘의 僧團改革運動」, 『電子佛典』 제18집,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2016, pp.15-16.

61) 金光植, 「1926년 불교계의 帶妻食肉論과 白龍城의 建白書」, 『韓國近代佛教의 現實認識』, 민족사, 1998, pp.186-187.

계속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함경북도의 재가승과 일제강점기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기 시작한 재가승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인다.⁶²⁾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한국불교의 재가승은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한 이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고려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함경북도 지방에 재가승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다. 『삼국유사』, 『고려사』, 『고려도경』 등을 통해 고려시대에 재가승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서구의 『고려도경』과 조선 후기에 저술된 여러 문헌에 나타난 재가승에 관한 기록은 대부분 ‘재가승의 유래’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재가승의 유래’에 관한 주장은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여 확설로 인정하기 어렵다. 재가승에 대해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대부분 불교사상이나 불교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조정의 관리이거나 유생들이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한 이후, 계율에 얽매이지 않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수행에 전념하는 재가승, 그리고 재가승의 집단인 재가승단의 출현은 대승불교의 사상체계에서는 가능하다. 특히 밀교에서는 처음부터 출가와 재가의 구분은 별로 의미가 없으므로 승려의 결혼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러한 밀교의 영향으로 한국불교에서도 재가승 혹은 재

62) 어느 심사위원은 이에 대해 “해방 직전에는 90% 넘는 승려가 결혼한 상태였다.”라는 점에 주목하여 ‘승려의 결혼’은 일본불교의 영향이나 총독부 정책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당시 불교계 내부에서 불교근대화의 한 방법으로 승려의 결혼이 보편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고견을 제시해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가승단이 출현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추정에 불과할 뿐,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그리고 고려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함경북도 지방에 거주하던 재가승과 해방 이후 정화의 대상이었던 재가승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직 규명된 것이 없다. 앞으로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함경북도 지역에서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재가승들이 조선 시대 혹독한 탄압과 피박은 물론 온갖 사회적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불교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일제강점기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불교교단사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새로 생겨난 취처승[대처승] 때문에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한 이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재가승’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함경북도에 거주하고 있었던 재가승들의 후예들이 지금도 북한에서 북한불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大正藏, 大正新修大藏經
韓佛全, 韓國佛教全書
金基哲, 『關北大觀』
金宗瑞 編, 『高麗史節要』
李範允·金魯奎, 『北輿要選』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徐榮輔 等著, 『萬機要覽』 「六鎮開拓條」
禹夏永, 『時務策』 「六鎮僧徒議」
一然, 『三國遺事』
鄭麟趾, 『高麗史』
鄭元容, 『北行隨錄』
鄭允容, 『北路紀略』
洪良浩, 『北塞記略』 「孔州風土記」
洪良浩, 『朔方風土記』
洪儀泳, 『北關記事』
『金剛頂經』(大正藏 18)
『大日經』(大正藏 18)
高翊晉, 『韓國古代佛教思想史』, 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金煥泰, 『韓國佛教史概說』, 經書院, 1986.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新文館, 1918.
松本有慶, 『密教の歴史』, 平樂寺書店, 1982.
이봉춘,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 민족사, 2015.
이재욱, 편집부 옮김, 『재가승만고(在家僧漫考)』, 온이퍼브, 2019.
鄭允容, 『北路紀略』(영인본), 亞細亞文化史, 1974.
鄭泰嫻, 『한국불교용통사』, 정우서적, 2002.
蔡尙植, 『高麗後期佛教史研究』, 一潮閣, 1991.
林錫珍 編, 『松廣寺誌』, 松廣寺, 1965.
權恩志, 「鄭允容의 『北路紀略』 研究」, 『민족문화연구』 제95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 金光植, 「1926년 불교계의 帶妻食肉論과 白龍城의 建白書」, 『韓國近代佛敎의 現實認識』, 민족사, 1998.
- 朴泰華, 『新羅時代의 密敎 傳來考』, 『曉城趙明基博士華甲記念 佛敎史學論叢』, 刊行委員會, 1965.
- 이수창(마성), 「백용성의 승단정화 이념과 활동」,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8.
- 이수창(마성), 「龍城震鐘의 僧團改革運動」, 『電子佛典』 제18집,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2016.
- 韓普光, 「白龍城禪師의 佛敎淨化運動」, 『大覺思想』 제7집, 대각사상연구원, 2004.

<신문 및 잡지 기사>

- 「元曉와 唯心主義」, 『朝鮮佛敎』 제3호(1924.7.11).
- 「河口師의 更生宣誓」, 『佛敎』 제20호(1926년 2월호).
- 「咸北の在家僧(1)」, 『朝鮮佛敎』 제11호(1925.3.11).
- 「咸北の在家僧(2)」, 『朝鮮佛敎』 제12호(1925.4.11).
- 今西龍, 「在家僧に關する調査一斑」, 『朝鮮彙報』, 「朝鮮總督府」, 1915년 3월호).
- 中村三笑, 「僧侶の弱點と無自覺」, 『朝鮮佛敎』 장간호.

<Web site>

-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294A_0130_010_0050 한국고전종합DB (검색: 2022.9.15)
- <https://ko.wikipedia.org/wiki/여진> (검색: 2022.10.15)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827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 2022.10.19)
- https://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kr#detail-kingYear/kr_005_0070_0070_0040/8/1029/06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검색: 2022.11.29)

Abstract

A Study on the Upasaka Monks of Korean Buddhism with a Focus on Hamgyeongbuk-do Province

Lee, Soo-chang(Ven. Ma-seong)

(Director, the Research Institute for Pali Literature)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and ideological backgrounds of the emergence of Upasaka or lay monks, who have already existed on the Korean Peninsula for a long tim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Buddhist Saṅgha. The first record of Korean lay monks in literature is *Sanguk 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三國遺事) compiled by the Buddhist monk Il Yeon. On top of that, fragmentary comments on the lay monks collectively residing in the northern region appear in *Goryeosa* (*History of Goryeo*: 高麗史), *Seonhwa Bongsu Goryeo Dogyeong* (宣和奉使高麗圖經) written by Seogeung (徐兢, 1091-1153), an envoy of the Song dynasty of China, and writings of the late Joseon Dynasty courtiers and Confucians. However, most of these records, for the sake of arousing interest to draw worldly people's attention, emphasized the fact that the lay monks, presumably displaced Jurchen people, lived in groups in the northern area and 'married and meat diet (娶妻肉食)'.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social services department of North Hamgyeong Province conducted a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lay monks including Imanishi Ryu (今西龍) living within the jurisdiction. However, their investigation report was not much different from those of officials and Confucian scholars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ey were mainly concerned with the 'origin of the lay monks'

and any discussion about the 'identity of the lay monks' has not been found. They overlooked the positive aspect that the lay monks did not give up their belief in Buddhism despite all sorts of social contempt and persecution and inherited the Dharma Lineage (法脈) through their own flesh and bloo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the Buddhist academic circles in Korea,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e Upāsaka monks of Korean Buddhism since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This paper is only the first academic work on the Upāsaka monks of Korean Buddhism. Starting with this paper, it is expected that full-scale studies on the lay monks in Korean Buddhism will be conducted.

Key words

Goryeo Dogyeong (高麗圖經), Lay monks (在家僧), Upāsaka monks (優婆塞僧), Married and meat diet (娶妻肉食), Esotericism (密教), dharāṇi (陀羅尼), Jurchen (女眞族)

논문투고일 : '22. 10. 20. 심사완료일 : '22. 11. 23. 게재확정일 : '22. 11. 23.